

숙향전의 구조와 초월적 모티프의 작품 내적 기능에 대한 연구

— 국문 경판본과 漢文 활자본의 비교를 중심으로 —

정 한 기*

1. 서 론

숙향전은 고소설 가운데 가장 널리 애독되었던 작품 중에 하나이다. 이는 현존하는 이본의 수와 방각본과 활자본의 출간 회수에서도 알 수 있다.¹⁾ 숙향전이 이러한 인기를 얻었다는 것은 당대의 독자층에게 숙향전이 공감을 불러일으켰다는 것과 작품 자체에 애독될 수 있는 요소가 있음을 의미한다.

숙향전에 대한 연구는 고전 소설 전반을 논의하는 가운데 하위 항목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김기동은 고전 소설 전반을 분류하는 가운데 숙향전을 愛情小說에 포함시키고 작품의 특징은 上界에서 적강한 남녀 주인공이 지상의 고난을 겪는 고행담으로 道仙의 표현이 작품 전반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²⁾ 이상택은 숙향전이 신성소설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H-R-L-C' 공통유형을 지닌 영웅담의 원형성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

* 박사 과정

1) 숙향전의 출간 회수는 방각본 6회 활자본 32회로 고전 소설중 가장 많이 출간된 작품이다. 조동일, 「韓國小說의 理論」, 지식산업사, 1989, p.286 참조.

2) 김기동, 「한국고전소설연구」, 교학사, 1983, pp.193-196.

하였다.³⁾ 그리고, 이상택은 숙향전의 초월주의적 특징을 작품에 나타난 모티프와 구조, 위기설정과 해소 방식, 인물 성격의 면에서 정치하게 분석하여 '도가적 초월주의 미학'과 연결될 수 있는 개연성을 제시하였다.⁴⁾ 서대석과 조동일은 숙향전에 나타난 신화적 특징에 주목하여 신화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서대석은 숙향의 고난담을 제석본풀이의 당금애기의 고난담과 비교하여 치모신 수난의 원형이 반복되는 것으로 보았다.⁵⁾ 조동일은 숙향전의 서사구조가 신화에서 추출되는 서사구조와 일치하는 영웅의 일대기로 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⁶⁾ 이상의 연구는 숙향전이 지니고 있는 초월적, 신성적 요소에 주목하여 서사문학 전반에 대한 조망 속에서 이루어진 업적으로 숙향전에 대한 본격적 논의라고 하기는 어렵다.

구충회는 숙향전의 이본에 주목하여 한글 필사본인 「沈氏本」이 국문본 중 最先本에 해당하고 한문 활자본과 국문본이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지적하였다.⁷⁾

김옹환은 숙향전의 이본을 개관하여 한문 판본과 국문본이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고 숙향전은 '천상계-지상계-천상계'로 전개되는 還元構造를 지니고 있으며 숙향의 위기가 천상적 존재에 의하여 해소되므로 숙향의 지상 고난이 천상계의 반영임을 지적하였다.⁸⁾ 또한 그는 환원구조와 천상적 존재는 ① 道教的 宇宙觀, ② 神仙思想, ③ 隱逸思想, ④ 醉樂思想을 나타내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김옹환의 연구는 이상택이 지적한 작품의 구조, 위기설정과 해소방식, 초월적 모티프의 추출 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견해이다.

김종대는 숙향전이 남녀의 사랑을 다룬 염정소설임을 전제하고 숙향과

3) 이상택, 「古典小說의 社會와 人間」, 『韓國思想大系1』,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소, 1973, p.351.

4) 이상택, 「고대소설의 세속화 과정 시론」, 『한국고전소설연구』, 새문사, 1983, pp.75-77.

이상택, 「醉漢浮碧亭記의 道家의 文化意識」, 『한국고전소설의 탐구』, 중앙출판, 1983, pp.142-147.

5) 서대석, 「한국서사무가의 연구」, 문학사상사, 1992, pp.174-176.

6) 조동일, 「韓國小說의 理論」, 지식산업사, 1989, p.344.

7) 구충회, 「숙향전이본고」,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3.

8) 김옹환, 「숙향전의 도교사상적 고찰」, 『한국문학의 도교적 조명』, 보성문화사, 1992.

이선의 사랑 성취에 내재된 갈등을 추출하여 조선조 유교 윤리의 부당성을 비판하고 인간 본성을 옹호한 작품이라고 지적하였다.⁹⁾ 김종대의 연구는 선행 연구와는 다른 시각으로 작품을 접근하였으나, 작품에서 주인공 숙향과 이선이 극심한 갈등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주인공을 둘러싼 인물인 장승상집 시비 사향과 양왕의 딸 매향에 의하여 유발되는 것으로 보인다.

선행 연구와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한 연구로는 이상구와 양혜란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상구는 숙향과 이선의 결합에 주목하여 숙향과 이선의 결합이 현격한 신분 차이를 드러내고 있으나 도선적 결구는 신분적 차이의 결합을 합리화하므로 작품은 결국 현실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였다.¹⁰⁾ 이상구는 선행 연구에서 작품의 초월적 성격에 치우친 경향을 반성하는 의도에서 숙향전의 현실적 성격에 주목하였으나, 숙향의 신분을 숙향이 이화정의 마고 할미에 의탁한 사실을 들어 '기생'으로 본 것은 작품 해석에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숙향이 이화정의 마고 할미에 의탁한 것은 '시련'의 한 양상으로 제시된 것이지 숙향의 신분으로 제시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양혜란은 숙향전에 나타난 地上 시간과 天上 시간의 교체, 순환에 주목하여 서사기법으로서 시간을 문제 삼았다.¹¹⁾

조용호와 신재홍은 숙향전이 지니고 있는 무속적 성격에 주목하였다. 조용호는 숙향전이 숙향과 이선의 탐색담이 중심이고 탐색의 귀결점은 원형적 자아의 회복으로 보았으며 이선의 구약 탐색은 바리공주의 구조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았다.¹²⁾ 조용호의 탐색담 구조는 '천상-지상-천상'으로 전개되는 모든 적강소설에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숙향전만의 특징을 지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신재홍은 숙향전에 나타난 미적 특질을 작품에 나타난 소재들의 원색적 이미지와 인간 육체에 대한 관심, 인간사에 대한 소박한 인식, 신의 인각적 측면의 부각이라고 지적하였다.¹³⁾ 그리고 신

9) 김종대, 「숙향전고」, 『국어교육』, 59·60호 합본, 한국 국어교육 연구회, 1987.

10) 이상구, 「숙향전의 현실적 성격」, 『고전문학연구』, 제6집,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91.

11) 양혜란, 「숙향전에 나타난 서사기법으로서의 시간문제」, 『우리어문학연구』, 3집, 한 국외국어대학교 사범대학 한국어교육학과, 1991.

12) 조용호, 「淑香傳의 構造와 意味」, 『고전문학연구』, 제7집,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92.

재홍은 작품의 이러한 특질이 무속적 배경과 관련된 것으로 보았다. 신재홍의 연구는 숙향전만이 지닌 특질을 찾아내려는 의도를 지닌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업적이다. 그러나 신재홍의 연구는 숙향전의 특징을 소재의 색채 이미지와 관련시켜 그 결론을 무속과 연결시킨 것은 작품의 소재적 측면을 확대 해석한 감이 있다.

이상 숙향전에 대한 연구사를 개관하였다. 선행 연구에서는 숙향전에 나타난 초월적인 성격에 주목하여 작품 구조와 도가적 사상의 추출에 관심을 가졌으며 다른 한편으로 최근의 연구는 새로운 시각으로 숙향전을 접근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런데 선행 연구에서는 숙향전이 지니고 있는 구성상의 특징과 초월적 모티프의 작품 내적 기능에 대한 연구는 소략한 감이 있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 '한문 판본 또는 한문 활자본 숙향전'과 '국문본 숙향전' 사이에는 질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나,¹⁴⁾ 그 질적 차이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이것이 작품에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언급은 소략하다. 그래서 본고는 숙향전의 작품성을 논의하는 차원에서 작품의 구조와 초월적 모티프에 초점을 두고 한문 판본 또는 한문 활자본과 국문본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가 작품에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논의의 순서는 본고의 연구 대상 자료를 선정한 다음 2장에서 작품의 구조를 추출하고 양본을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지적하고 3장에서는 초월적 모티프를 추출하여 작품 내적 기능을 지적한 다음 한문본과 국문본을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지적하고 결론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고 이후의 연구를 전망하는 순으로 진행한다.

현재 학계에 보고된 숙향전의 이본은 국문 판본, 국문 필사본, 국문 활자본, 漢文 판본, 漢文 활자본, 漢文 필사본의 형태로 30여 종이 있다. 국문본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 필사본인 「沈氏本」을 들고 있는데¹⁵⁾ 「沈氏本」은 중간 이하 부분이 없는 낙질이다. 국문본은 활자본, 필사본, 판본이 모두 내용이 비슷하고 사건 전개에 차이가 없이 대동소이한 것으로 지

13) 신재홍, 「淑香傳의 美的 特質」, 『古小說研究論叢』, 景仁文化社, 1994.

14) 구충희, 앞의 논문과 김용환 앞의 논문, 이상구, 위의 논문.

15) 구충희, 앞의 논문.

적되고 있는데¹⁶⁾ 본고에서는 국문 경판본(파리 동양어학원 소장본)¹⁷⁾을 대상 자료로 선정하였다. 국문 경판본(파리 동양어학교 소장본)은 비교적 이론 시기의 것¹⁸⁾으로 완질을 갖추고 있어 논의의 전개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문본은 漢文 판본과 漢文 활자본, 漢文 필사본이 있는데 漢文 활자본은 漢文 판본에 단지 현토한 것에만 차이가 있을 뿐 漱文 판본과 동일본으로 보고 있다.¹⁹⁾ 본고는 漱文 판본 또는 漱文 활자본과 국문본과의 비교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한문본 중 한문 판본과 동일본으로 지적된 한문 활자본²⁰⁾을 대상 자료로 선정한다.

2. 숙향전의 구조

국문 경판본과 漱文 활자본의 비교에서 작품 전체의 줄거리를 개관하기 위하여 먼저 순차 단락을 나눈다. 그 다음 양본의 순차 단락을 비교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숙향전의 구조를 추출한다. 숙향전의 구조는 선행 연구에서 '천상-지상-천상'의 환원구조임을 지적하였다. 그런데 환원구조는 숙향전을 포함한 적강소설 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숙향전만의 특징을 드러내기에는 미흡하다. 그래서 본고의 구조 분석은 환원구조를 받아들이되 숙향전의 특징을 부각하기 위하여 주인공 숙향의 지상에서 행한 행적에 초점을 두고 진행한다. 숙향전의 구조를 분석한 다음 국문 경판본과 漱文 활자본을 비교하여 양본의 구조적인 차이를 지적한다.

16) 김용환, 앞의 논문, p.189.

17) 김동욱이 편한 「影印 古典小說板刻本全集」卷四에 전질이 수록되어 있다.

18) 경판본(파리 동양어학교 소장본)은 상, 중, 하 세권으로 되어 있는데 하권의 말미에 '戊午十月 冶洞新板'이라는 간기가 있다. 戊午는 1858년으로 보인다. 이창현, 「경판 방각소설 판본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논문, 1995와 「影印 古小說板刻本全集」卷一에 수록된 解說 참조.

19) 김용환, 앞의 논문, pp.185-191.

20) 동국대학교 한국학연구소에서 편한 「活字本 古典小說全集」卷四에 수록되어 있다.

2.1. 순차 단락

순차 단락은 국문 경판본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漢文 활자본과의 차이점은 밑에 괄호로 표시하였다.

- 1> 송나라 남양땅에 운수선생의 자식인 김전이 있었다.
- 2> 김전이 어느날 거북을 살려 주고 보은으로 거북에 의한 구원과 진주를 받는다.
- 3> 김전이 장희의 딸과 결혼하여 숙향을 낳는다. 숙향의 탄생시 선녀가 내려와 숙향은 천상에서 득죄하강한 인물이며 태울진인과 결연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다.
(漢文 활자본: 숙향의 탄생시 선녀가 내려온 내용이 없다. 숙향 탄생후 점장이 黃鈞이 숙향이 천상에서 득죄 하강한 인물이고 초반에 고난을 겪다가 후반에 귀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다.)
- 4> 숙향이 5세 때 병란으로 가족과 이별하며 이별시 부모에게서 진주로 만든 옥지환을 받는다.
- 5> 숙향은 부모와 이별후 거리를 방황하며 고생을 하는데 황새, 까치, 잔나비등 천상적 존재의 도움을 받는다. 숙향은 청조의 인도로 명사계로 가서 후토부인을 만나며 후토부인은 부모가 무사하다는 것과 천상 규성선녀의 하강인인 장승상부인에 의탁하여 양육될 것임을 이야기한다.
(漢文 활자본: 숙향이 거리를 방황하며 고생하다가 대조와 백록 등 천상적 존재의 도움을 받는다. 숙향의 명사계 여행이 없다.)
- 6> 숙향은 사슴의 인도로 장승상집 동산에 인도되고 장승상 부인은 선녀가 내려오는 꿈을 꾼 뒤 동산에서 숙향을 발견한다.
(漢文 활자본: 숙향이 거리를 방황하다가 사슴의 인도로 장승상집에 도착한다. 장승상 부인의 꿈이 없다.)
- 7> 장승상부부는 숙향을 친자식처럼 사랑하며 숙향이 성장하자 집안의 대소사를 숙향에게 맡긴다.
- 8> 시비 사향이 장승상 부부가 숙향을 사랑함을 시기하여 숙향이 도둑질한 것으로 모함하여 숙향을 죄아 낸다. 사향의 모함 이전에 사향

의 모함을 암시하는 징조가 나타난다.

(漢文 활자본 : 사향의 모함을 암시하는 징조가 없다.)

- 9> 쫓겨난 숙향이 강에 투신 자살하는데 용녀, 선녀가 구원한다. 선녀는 숙향에게 숙향이 월궁 소아로 천상 월연단을 훔쳐 태울에게 준 죄로 하강하였다 점과 시비 사향은 징치되며 장승상 부부는 숙향의 무고함을 알게 된다는 점과 태울과 만나게 되며 그 전에 천태산 마고선녀에 의탁하여 양육될 것임을 이야기한다.

(漢文 활자본 : 쫓겨난 숙향이 강에 투신 자살하는데 거북의 구원을 받는다. 숙향과 선녀의 대화가 없다.)

- 10> 사향이 천상적 존재인 중에 의하여 징치되고 숙향의 무고함이 밝혀 진다. 장승상 부부는 숙향이 죽은 줄 알고 숙향의 화상을 그려 집에 둔다.

(漢文 활자본 : 사향이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 징치되고 장승상 부부는 숙향의 무고함을 안다. 국문경판본은 '자살 시도-사향 징치'의 순으로 되어 있음에 비하여 漢文 활자본은 '사향 징치-자살 시도'의 순으로 되어 있다.)

- 11> 숙향이 강에서 구조된 후 강가에서 화재를 당하나 화덕진군에 의하여 구조를 받는다.

(漢文 활자본 : 숙향이 화재를 당하는 내용이 없다.)

- 12> 숙향이 마고할미에게 구출 양육된다. 마고할미가 신이한 능력이 있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漢文 활자본 : 마고할미의 신이성이 축소되어 있다.)

- 13> 숙향이 꿈에 천상계를 여행하여 이선과 만나고 이선은 숙향의 옥지 환을 가져 간다. 숙향이 꿈에 본 것을 수 놓아 상인에게 판다.

- 14> 낙양 이위공의 부인이 이선을 낳는다. 태몽에 이선은 태울진인이 천상에서 득죄 하강한 인물임이 나타나고 이선의 탄생시 선녀가 내려와 이선이 숙향과 결연할 것임을 이야기한다.

(漢文 활자본 : 이선의 탄생시 선녀가 내려온 내용이 없다.)

- 15> 이선이 성장하여 유람하던 중 대성사에서 꿈에 천상계를 여행하여 숙향을 만나고 숙향의 옥지환을 가져 온다. 이선이 상인에게서 숙

향이 수 놓은 족자를 사고 숙향을 찾으러 마고할미의 술집에 찾아간다.

- 16> 마고할미는 거짓으로 숙향이 병신이라고 하며 이선에게 숙향이 거처온 과정을 다시 탐문하게 한다. 이선은 숙향이 거처온 과정을 다시 탐문한 다음 옥지환을 보여 숙향과 천정 배필임을 확인한다.

(漢文 評자본: 이선이 숙향을 만나기 위한 고초가 없다.)

- 17> 이선이 부모에게 고하지 않고 고모의 주흔으로 숙향과 혼인한다.

(漢文 評자본: 고모의 주흔없이 이선 스스로 마고할미를 설득하여 혼인한다. 이선은 결혼 후에 옥지환을 숙향에게 보여 천정배필임을 확인한다.)

- 18> 이위공이 이를 알고 낙양태수 김전에게 숙향을 하옥하여 죽이게 한다.

- 19> 김전의 부인이 숙향을 죽이지 말도록 김전을 만류하였으며 이선의 고모가 이위공을 책망하여 숙향이 죽음을 모면하도록 한다. 이위공은 숙향을 멀리 쫓아 보내고 이선은 태학으로 보내어 과거 공부를 하게 한다.

(漢文 評자본: 김전 부인의 만류가 있음은 일치 하지만, 이위공 스스로 숙향을 불쌍히 여겨 죽이지 않는다.)

- 20> 쫓겨난 숙향은 할미가 죽고 할미가 남겨준 개와 함께 외로운 생활을 한다. 할미가 남겨준 개는 신이한 영물로 묘사되어 있다.

(漢文 評자본: 개의 신이성이 축소되어 있다.)

- 21> 숙향이 도둑을 피해 할미 무덤가에서 통곡하니 이위공 부부가 이를 듣고 숙향을 집에 데려와 양육한다.

(漢文 評자본: 숙향이 우연히 이위공 집 근처에서 올다가 이위공 부부에게 발견된다.)

- 22> 숙향이 이위공의 관복을 지어 천자의 칭찬을 받는다.

- 23> 이선이 등과하여 숙향과 재회하고 숙향은 천자에게 정절 부인을 제 수 받는다.

- 24> 이선이 형주 자사가 되어 선정을 베풀고 숙향은 형주로 가던 중 온 혜 입었던 마고할미, 화덕진군, 표진강 용녀에게 제사지내고 장승상

부부를 재회하여 보은한다.

- 25> 김전 부부와 숙향은 노옹과 마고할미의 지시로 재회한다.

(漢文 활자본: 숙향과 김전부부의 만남이 숙향이 형주로 가는 중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 26> 양왕은 자신의 딸 매향이 이선의 副室이 되는 것을 거절 당하자 양심을 품고 이선을 황후의 병을 고치는 약을 구해오도록 보낸다.

(漢文 활자본: 매향의 구혼 내용이 없다.)

- 27> 이선이 선계를 여행하여 약을 구해서 왕후의 병을 고치고 매향을 부인으로 맞이한다.

(漢文 활자본: 이선의 선계 여행이 없다.)

- 28> 숙향과 이선은 2자 1녀를 두고 자식이 모두 영달하였으며 나이 칠십에 선약을 먹고 승천하였다.

이상 순차단락을 개관하였다. 이중 11>단락과 26>, 27>단락은 漢文 활자본에는 없고 국문 경판본에만 있다. 전체 28개 단락 중 3개 단락만이 漢文 활자본에 빠져 있으므로 전체 내용에 있어서는 漱文 활자본과 국문 경판본 사이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다만 앞에서 순차 단락의 비교에서 드러나듯이 단락 자체의 내용에 상이함을 보이고 있다. 국문 경판본과 漱文 활자본에서 차이가 드러나는 단락을 초월적 성격을 지닌 단락²¹⁾과 현실적 성격을 지닌 단락으로 나누어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초월적 성격을 지닌 단락: 3>, 5>, 6>, 8>, 9>, 11>, 12>, 14>, 20>, 21>, 25>, 27>

현실적 성격을 지닌 단락: 16>, 17>, 19>, 26>

초월적 성격과 현실적 성격을 함께 지닌 단락: 10>

국문 경판본과 漱文 활자본과의 비교에서 차이를 드러내는 단락은 초월

21) 초월적 성격의 단락은 단락 중 神仙, 道術, 異人, 報應, 定數, 言識, 神異, 變身, 生再生 등의 초월적 모티프를 지닌 단락이다. 이상택, 「고대소설의 세속화과정 시론」, p.75 참조.

적 성격을 지닌 단락이 10개임에 비하여 현실적 성격을 지닌 단락은 4개이다. 漢文 활자본과 국문 경판본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초월적 성격에 있으며 漢文 활자본은 국문 경판본에 비하여 초월적 성격이 축소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초월적 성격을 지닌 단락에 대한 작품 내적 의미는 3장에서 논의될 것이다.

2.2. ‘가족 분리’와 ‘연인 분리’의 대응 구조

순차 단락의 비교에서 국문 경판본과 漢文 활자본은 전체 내용에서는 비슷하나 단락 내용에서 상이하다. 국문 경판본은 초월적인 내용이 부각되는데 비하여 漢文 활자본은 초월적인 내용이 축소되어 있다. 앞에서 설정한 순차단락을 기준으로 작품의 구조를 분석하고 국문 경판본과 漢文 활자본을 비교한다.

1>단락과 2>단락은 숙향의 부친인 김전에 대한 소개이고 3>단락은 숙향의 탄생이다. 숙향은 탄생 이후 병란으로 인하여 가족과의 결합 상태에서 분리되어 고난을 당한다(4>단락). 그러다가 숙향은 천상적 존재에 의하여 구출된다(5>단락). 그후 숙향은 천상적 존재의 인도로 장승상부부에 의하여 양육된다(6>, 7>단락). 1>단락에서 7>단락을 숙향을 중심으로 다시 묶어 보면 ‘부모와의 결합-분리, 고난-구원-장승상부부와의 결합’의 순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 때 양육자인 장승상부부는 숙향을 친딸처럼 사랑하고 숙향은 친부모처럼 섬기고 있어 양육자는 가족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숙향은 장승상 집에서 양육되다가 시비 사향의 모함으로 장승상 부부와 분리되어(8>단락) 고난을 당하다가 천상적 존재의 구원을 받고(9>, 11>단락) 마고할미에 의하여 양육된다(12>단락). 숙향은 마고할미에 의하여 양육되는 상황에서 이선과 결합하게 된다(13>, 14>, 15>, 16>, 17>단락). 8>단락에서 17>단락까지는 숙향이 ‘장승상부부와의 결합-분리, 고난-구원-마고할미와의 결합, 이선과의 결합’순으로 전개되어 1>단락에서 7>단락까지 전개된 ‘가족과의 결합-분리, 고난-구원-양육와 결합’과 동일한 전개를 보이고 있다. 양육자 마고할미는 숙향을 친딸처럼 생각하고 숙향도 마고할미를 부모처럼 모시고 있어 마고할미도 장승상부부와 같이 숙향에

게 가족의 성격을 지닌다. 숙향의 결합이 가족의 성격을 지닌 양육자와의 결합에서 이선과 결연하게 되어 연인과의 결합으로 전환하고 있다.

숙향은 이선과의 결합에서 분리되어 하옥되거나 羣거 나는 고난을 당하며(18>, 19>단락) 양육자인 마고할미마저 죽어 버려 외로운 생활을 하다가(20>단락) 이위공 부부에게 구출되어(21>, 22>단락) 이선과 재결합을하게 된다(23>단락). 24>단락과 25>단락은 숙향이 헤어졌던 장승상부부, 김전부부와의 재결합하는 내용이다. 18>단락에서 25>단락은 숙향이 이선부모의 반대로 이선과의 결합 상태에서 분리되어 고난을 당하다가 이선과 재결합하게 된다는 내용이 중심을 이룬다. 즉 18>단락에서 25>단락은 ‘이선과의 결합-분리, 고난-구원-이선과의 재결합’의 순으로 전개된다.

숙향은 또 한번 연인과 분리되는데 양왕은 이선이 자신의 딸 매향과의 청혼을 거절한데 앙심을 품고 이선을 왕후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한 약을 구하도록 보낸다(26>단락). 이선은 선계를 여행하여 약을 구해서 왕후의 병을 낫게 하고 숙향과 재결합한다(27>단락). 그후 이선과 숙향은 행복하게 살다가 승천한다(28>단락).

이상 단락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1>에서 28>까지 단락은 크게 네 단락군으로 묶을 수가 있다. 첫번째 단락군은 ‘친부모와 결합-분리, 고난-구원-양부모와 결합’으로 전개되고 있다. 두번째 단락군은 ‘양부모와 결합-분리, 고난-구원-마고할미와 결합, 연인과 결합’으로 전개된다. 세번째 단락군은 ‘연인과 결합-분리, 고난-연인과 재결합, 양부모와 재결합, 친부모와 재결합’, 네번째 단락군은 ‘연인과 결합-분리, 고난-연인과 재결합’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숙향전은 숙향의 분리와 결합이 반복 연속되고 있다. 분리의 원인과 ‘분리-결합’을 재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락군: 병란-친부모와 분리-양부모와 결합

둘째 단락군: 시비의 모함-양부모와 분리-마고할미와 결합, 연인과 결합

셋째 단락군: 연인 부모의 반대-연인과 분리-연인과 재결합

넷째 단락군: 懸敵의 시기-연인과 분리-연인과 재결합

작품 전체는 숙향의 '분리(고난)-결합'이 4회에 걸쳐 반복되고 있다. 전반부 2회는 가족과의 분리, 결합을 나타내고 있고, 마고할미와의 결합을 정점으로 하여 후반부 2회는 연인과의 결합과 분리를 반복하고 있다. 즉 숙향의 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족 분리'와 성장이후 결연 과정에서 나타나는 '연인 분리'가 각각 2회씩 대용을 이루며 전개되고 있다.

분리의 원인은 각각 병란과 시비 사향의 모함, 연인의 부모가 반대함과 懸敵의 시기로 나타나고 있다. 시비 사향은 숙향이 장승상 집에 오기 전에는 장승상집 살림을 자신이 맡아서 처리하였다. 그런데 숙향이 와서 장승상 부부의 사랑을 받게 되자 사향은 이것을 시기하여 앙심을 품고 장승상 부부의 사랑을 놓고 숙향과 갈등하게 된다. 결국 사향이 장승상 부부에 대한 총애를 놓고 숙향과 벌이는 갈등이 숙향을 분리시키는 원인이다. 양왕의 딸 매향은 이선이 숙향과 결혼하기 전에 부모 사이에 이선과 정혼하기로 약속되었다. 그런데 숙향의 등장으로 이선이 결혼해 버리자 부모인 양왕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선과의 결혼을 고집한다. 결국 매향은 이선의 사랑을 놓고 숙향과 갈등하게 되며 이것이 원인이 되어 매향의 부친인 양왕은 이선을 숙향과 분리시켜 약을 구하는 원정을 떠나게 한다. 친부모인 김전 부부와 숙향이 분리되게 되는 원인인 병란은 외부 세계에서 주어진 것이지 숙향과의 갈등 관계에서 형성된 것은 아니다. 연인 이선과 첫번째 분리의 원인이 되는 이선 부모의 반대에서 이선의 부모는 숙향에게는 시부모에 해당하므로 숙향의 上位에 있는 존재이다. 그리고 이선 부모의 반대 원인은 이선이 부모 몰래 결혼하였다는 것에 있는 것이지 숙향의 인물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병란과 연인 부모의 반대는 숙향과의 갈등 관계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외부세계에서 주어진 성격을 띠고 있다. 시비 사향의 모함과 懸敵 매향의 시기는 갈등 관계에서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숙향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첫번째 분리는 외부의 세계에서 주어진 것이고 두번째 분리는 숙향과의 동일한 위치에 있는 인물의 갈등 관계에서 형성된 것이며 세번째 분리는 숙향과 동일한 위치에 있는 인물의 갈등 관계에서 형성된 것이다. 전반부 가족 분리에서 분리의 원인은 '외부세계에서 주어진 것 — 갈등 관계에서 형성된 것'으로 전개되고 후반부 연인 분

리에서도 분리의 원인이 '외부세계에서 주어진 것 — 갈등 관계에서 형성된 것'으로 전개되어 대옹을 이루고 있다. 이것은 숙향전의 구조가 숙향의 '분리-결합'이 반복되면서 '가족 분리'에서 '연인 분리'로 전개되며 서로 대옹을 이루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상 국문 경판본을 중심으로 구조를 추출하였다. 이것을 漢文 활자본과 비교한다.

漢文 활자본은 숙향의 '분리(고난)-결합'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국문 경판본과 일치하지만 '분리-결합'의 전개 과정에 차이가 있다. 국문 경판본은 가족관계에서 연인관계로의 전개를 보이며 대옹을 보이고 있으나, 漢文 활자본은 26>단락과 27>단락이 없음으로 인하여 가족 관계에서 연인 관계로의 전개에 '대옹'이 파괴되어 있다. 이러한 차이점은 작품의 구조적인 면에서 국문 경판본이 漢文 활자본에 비하여 짜임새가 훨씬 더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조에 대한 논의와 아울러 국문 경판본과 漱文 활자본의 단락 비교에서 차이를 보이는 단락들 중 현실적인 성격을 지닌 단락을 중심으로 이들 단락들이 작품 전개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한다. 초월적 성격을 지닌 단락들은 3장에서 살펴볼 것이다. 漱文 활자본과 차이를 보이고 있는 단락중 현실적 성격을 지니거나 현실적 성격과 초월적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는 단락은 10>단락, 16>단락, 17>단락, 19>단락, 27>단락이다. 이 중 27>단락은 이선이 양왕에 의하여 약을 구하려 가게 되는 내용으로 작품의 구조를 비교하면서 논의하였다. 따라서 27>단락을 제외한 나머지 단락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10>단락은 사향이 천상적 존재에 의하여 징치되고 숙향의 무고함이 밝혀지는 내용인데 초월적 성격과 현실적 성격이 복합되어 있다. 현실적 성격을 지닌 내용은 숙향의 자살 시도와 사향 징치의 순서에 관한 것이다. 국문 경판본은 숙향의 자살 시도 다음에 사향의 징치로 되어 있고, 漱文 활자본은 사향의 징치 다음 숙향의 자살 시도로 되어 있다. 국문 경판본에서 숙향은 장승상 집에서 쫓겨나 강가로 와서 자신의 역울함을 호소한 다음 강에 자살한다. 그후 천상적 존재에 의해 구원되어 사향의 징치를 알게 된다. 그런데 漱文 활자본은 이러한 순서가 반대로 되어 있는 바, 숙향이 쫓겨난 다음 장승상집 주위에서 섬광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고 행인에

께서 사향이 징치되었음을 듣는다. 그런 다음 강에 이르러 자살을 시도한다. 그러면 작품 전개상 '자살 시도-사향징치'와 '사향 징치-자살 시도' 중 어느 것이 타당한가? 숙향은 장승상집을 헤겨 나면서 자신의 무고함을 혈서로 자신의 방에 붙이고 나오며 강에 이르러서도 자신의 무고함을 호소하며 결국 죽음을 선택한다. 사향 징치는 이러한 숙향 자신의 억울함이 해명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사향징치가 선행한다면 숙향의 억울함이 해소되었으므로 자살을 시도할 이유가 없다. 결국 숙향의 자살시도 이후에 사향 징치로 이어지는 것이 합리적인 전개이다.

16>단락은 마고할미가 이선으로 하여금 숙향을 만나기 위하여 고초를 겪게 하는 내용이다. 漢文 활자본은 이선의 고행 내용이 없이 이선이 마고할미를 줄라 숙향과 만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선의 고행은 숙향과의 만남을 극적인 것으로 하는 역할을 한다.

17>단락은 이선과 숙향의 결혼 과정에 대한 내용이다. 국문 경판본에서 숙향은 이선이 옥지환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결혼을 용낙하며 숙향과 이선은 고모의 주혼으로 결혼한다. 漱文 활자본은 이선이 스스로 마고할미를 설득하여 숙향과 결혼하며 옥지환은 숙향이 결혼 후에 확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국문 경판본과 漱文 활자본의 차이는 고모의 주혼 유무와 옥지환 확인의 순서이다. 고모의 등장은 숙향이 죽음을 모면하는 19>단락의 사건 전개와 관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결혼에 주혼자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국문 경판본과 漱文 활자본 사이의 선후 문제와도 관련된다. 숙향과 이선은 천상에서 만나 옥지환을 주고 받는 꿈을꾼다. 그래서 옥지환은 천정 배필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숙향과 이선의 결연과정에서 이선은 꿈에서 숙향을 만난 다음 지상에서 숙향을 만나기 위하여 고행을 한다. 이선의 고행은 숙향과의 만남이 쉽게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극적인 것이 되도록 하는 것인 바, 이러한 극적인 고행의 절정에 옥지환 확인을 둘으로써 만남이 완전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작품 전개상 숙향이 옥지환 확인을 통하여 이선이 자신의 천정 배필임을 확인한 다음 둘의 결혼이 이어지는 것이 합리적이다.

19>단락은 옥에 갇힌 숙향이 죽음을 모면하는 내용이다. 이위공은 이선이 부모 몰래 숙향과 결혼한 것을 알고 김전에게 연락하여 숙향을 죽이게

한다. 그러나 김전은 숙향을 죽이지 않고 하옥하기만 하는데 이에 화가 난 이위공이 다시 숙향을 죽이려 하자 고모의 책망으로 이위공은 숙향을 죽이지 못하고 멀리 내쫓기만 한다.²²⁾ 국문 경판본에는 숙향이 고모에 의하여 죽음을 모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漢文 활자본에는 이위공 스스로 숙향을 불쌍히 여겨 죽이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위공은 부모 몰래 결혼한 것에 화가 난 상태이며 이러한 진노는 이위공이 숙향을 구출 양육하는 21>단락까지 지속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위공 자신이 숙향을 불쌍히 여겨 풀어준다는 설정보다는 제삼의 중재자에 의하여 숙향이 풀려나는 것으로 설정하는 것이 작품 전개상 합리적이다.

이상 숙향전의 구조를 분석하여 국문 경판본과 漢文 활자본을 비교하였고 아울러 국문 경판본과 漢文 활자본에서 차이를 보이는 단락들 가운데 현실적 성격의 단락을 중심으로 작품 전개의 합리성이라는 측면을 살펴보았다. 숙향전은 '가족 분리'와 '연인 분리'가 각 2회씩 대용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국문 경판본은 구조적 짜임새가 완전함에 비하여 漢文 활자본은 구조가 파괴되어 있다. 국문 경판본은 10>단락에서 '자살기도-사향징치'의 순서로 전개되고 17>단락에서 '옥지환 확인-결혼'의 순서로 전개되며 19>단락에서 숙향이 죽음을 모면하는데 중재자를 설정하여 작품 전개에 합리성을 부여하고 있다.

3. 초월적 모티프의 작품 내적 기능

앞장에서 구조적인 면에서 漱文 활자본과 국문 경판본을 비교하였다. 국문 경판본은 구조적인 면에서 숙향의 '분리-결합'이 4회에 걸쳐 반복되며 '가족 분리'와 '연인 분리'가 내용을 이루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구조를 漱文 활자본과 비교하였을 때 漱文 활자본은 숙향의 '분리-결합'의 반복이라는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으나, 가족 분리와 연인 분리가 내용을 이루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차이는 국문 경판본이 漱文 활자본에 비하여

22) 漱文 활자본은 이위공 스스로 숙향이 불쌍하여 풀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구조적으로 긴밀하게 짜여져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현실적인 성격을 지닌 단락의 비교에서 漢文 활자본과 국문 경판본은 사건 전개의 순서에 차 이를 보이고 있는 단락이 있는데 국문 경판본이 漢文 활자본에 비하여 사건 전개의 순서가 합리성을 지니고 있다. 이것을 종합하면 결국 국문 경판본이 구조적인 측면에서 구조적 짜임이 긴밀하고 사건 전개에 합리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숙향전에 나타난 초월적 모티프를 찾고 이러한 모티프가 작품내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漢文 활자본과 국문 경판본을 비교하고자 한다.

3.1. 작품에 나타난 초월적 모티프의 양상

앞에서 제시한 순차 단락에서 초월적 성격의 단락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2>단락: 김전이 살려준 거북이 김전의 목숨을 구함.
- 3>단락: 숙향 탄생시의 태몽.(국문 경판본: 숙향 탄생시 선녀가 내려옴.
漢文 활자본: 왕군의 예언)
- 5>단락: 천상적 존재의 구원.(국문 경판본: 숙향과 후토부인의 대화)
- 6>단락: 사슴의 인도로 장승상집에 도착.(국문 경판본: 장승상 부인의 꿈)
- 8>단락: 사향의 모함을 암시하는 까치의 울음.(漢文 활자본: 없음)
- 9>단락: 천상적 존재의 구원.(국문 경판본: 숙향과 선녀의 대화)
- 10>단락: 사향이 천상적 존재에 의하여 징치됨.(漢文 활자본: 없음)
- 11>단락: 숙향이 화재에서 화덕진군에 의하여 구원됨.(漢文 활자본: 없음)
- 12>단락: 천상적 존재로 마고할미.(국문 경판본: 신이성 부각 漢文 활자본:
신이성 축소)
- 13>단락: 숙향이 꿈에 천상계를 여행함.
- 14>단락: 이선 탄생시의 태몽.(국문 경판본: 이선 탄생시 선녀가 내려옴)
- 15>단락: 이선이 꿈에 천상계를 여행함.
- 20>21>단락: 천상적 존재로 개.(국문 경판본: 신이성 부각 漢文 활자본:
신이성 축소)

25>단락: 김전부부와 숙향의 만남에 천상적 존재의 도움.(漢文 활자본: 없음)

27>단락: 이선이 선계를 여행함.(漢文 활자본: 없음)

위의 단락들을 성격이 같은 것끼리 묶으면 크게 구원 모티프와 예언 모티프, 천상적 존재의 신이성, 초월계 여행 모티프로 나눌 수 있다.²³⁾ 네 가지 모티프와 단락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구원 모티프: 2>단락 거북의 김전 구원, 5>단락 황새, 원숭이, 청조의 숙향 구원, 9>단락 용녀와 선녀의 숙향 구원, 11>단락 화덕진군의 숙향 구원(국문 경판본만).

예언 모티프: 3>단락 숙향 탄생시 선녀의 말(국문 경판본), 점장이 왕 균의 말(漢文 활자본), 5>단락 후토부인과의 대화(국문 경판본만), 6>장승상 부인의 꿈(국문 경판본만), 8>단락 사향의 모함 암시(국문 경판본만), 9>단락 숙향과 선녀와의 대화(국문 경판본만), 14>단락 이선 탄생시 선녀의 말(국문 경판본만).

천상적 존재의 신이성: 10>단락 사향이 천상적 존재에 의하여 징치됨(국문 경판본만), 12>단락 마고할미의 신이성이 부각됨(국문 경판본만), 20> 21>단락 마고할미의 개가 신이성이 부각됨(국문 경판본만), 25>단락 천상적 존재의 도움으로 김전부부와 숙향이 재회함(국문 경판본만).

초월계 여행 모티프: 13>단락 숙향이 꿈에 천상을 여행하여 이선을 만남, 15>단락 이선이 꿈에 천상을 여행하여 숙향을 만남, 27>단락 이선이 求藥하러 초월계를 여행함(국문 경판본만).

국문 경판본과 漢文 활자본은 구원 모티프를 공통으로 지니고 있으나, 초월계 여행 모티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고 특히 예언 모티프와 천상적 존재의 신이성에서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문 경판본과 漢文 활

23) 각각의 단락에는 여러 개의 초월적 모티프가 복합되어 있는 것도 있다. 단락들을 네 가지 모티프로 묶는 기준은 하나의 단락에 있는 여러 개의 모티프 중 그 단락의 중심 내용을 차지하는 모티프로 한다.

자본이 '천상-지상-천상'이라는 작품 결구의 근간이 되는 구원자에 대해서는 천상적 존재를 설정하고 있으나, 작품 전개의 상세한 부분에서는 초월적 성격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국문 경판본은 漢文 활자본에 비하여 예언 모티프와 초월적 존재의 신이성과 초월계 여행 모티프가 부각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초월적 모티프의 부각은 작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리고 국문 경판본과 漢文 활자본 사이 초월적 모티프의 차이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본고는 이것을 해명하기 위하여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고 있는 예언 모티프와 천상적 존재의 신이성을 중심으로 국문 경판본과 漱文 활자본을 비교한다.²⁴⁾

3.2. 초월적 모티프의 작품 내적 기능

국문 경판본과 漱文 활자본에 드러난 초월적 모티프의 양상을 비교하였다. 국문 경판본과 漱文활자본은 '천상-지상-천상'으로 전개되는 작품 결구에서 근간이 되는 초월적 구원 모티프에서는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작품 전개의 상세한 부분에서는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바, 국문 경판본은 漱文 활자본에 비하여 예언 모티프, 초월적 존재의 신이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차이가 작품 내적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1) 사건 전개의 암시

숙향의 분리와 고난의 동인은 의견상 전쟁, 시비의 모함, 시부모의 반대, 戀敵의 질투와 같이 현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태몽과 후토부인, 선녀의 이야기에서 언급된 것처럼 천상적인 의도의 반영이며 결국 숙향과 이선의 고난은 천상의 죄를 지상에서 속죄하는 성격을 띠고 있

24) 국문 경판본과 漱文 활자본은 예언 모티프와 천상적 존재의 신이성, 초월계 여행 모티프에서 차이를 보인다. 초월계 여행 모티프는 13>단락, 15>단락, 27>단락이다. 27>단락은 구조를 논의하는 가운데 그 의미와 성격을 살펴보았고 13>단락과 15>단락은 예언모티프에 포함시켜 언급될 것이다. 그래서 초월계 여행 모티프에 대한 논의는 생략한다.

다.²⁵⁾ 이러한 천상적 질서의 실현은 작품 전개의 긴밀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천상적 질서의 암시와 작품에 나타난 실현 양상을 살펴보면 작품의 긴밀성의 정도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숙향과 이선의 득죄와 고난에 대한 암시는 숙향이 탄생하는 3>단락에 서 처음으로 나타난다. 이것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1 權內 뉴리병의 항疏를 기우러 아회를 씻겨 누이고 니르더 이 아회는 월궁소애라 상제의 득죄하고 터을 선군과 인간의 격강호였시니 귀히 길너 텐 절을 어기지 말으소서 이 아회 빈필은 낙양 니상서집 아진니 이는 터을이라 난 이제 그리로 가노니 이 아회 일흔은 숙향이라 하고 주는 소이라 호소서²⁶⁾

①-2 鈞이 對曰 此兒는 誠非塵世凡庸之比오 乃是月宮素娥之靈으로 得罪上帝하고 暫謫下界하야 累經困厄하며 傷醫險苦하야 以贖前主之罪然後에야 始得今世之樂矣러니 年及五歲則如風落葉하고 若水浮萍하야 一別父母하고 千里相思라가 及其十五年後에 當不期而會하리니 以言其光則險勞이 莫測이오 以論其後則實不可言이라 헛노라²⁷⁾

위에 인용한 ①-1은 국문 경판본의 숙향의 탄생이고 ①-2는 漢文 활자본에서 숙향의 탄생 이후 짐장이 黃鈞의 말이다. ①-1의 내용은 숙향이 천상에서 득죄한 인물이며 태울진인인 이선의 배필이고 이러한 고난과 결연은 하늘에서 정한 것이라는 점으로 사건 전개가 天定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임을 말하고 있다. 천상적 질서의 작품 실현은 漢文 활자본에서도 일치하고 있는데 ①-2에서 사건 전개가 숙향의 고행담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것이 모두 하늘에서 죄를 지은 때문이며 天定이라는 내용이 핵심이다. 따라서 漱文 활자본과 국문 경판본 모두 숙향의 고난이 하늘에서 정해진 것이라는 천상적 질서의 지상적 실현이라는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탄생시의 초월적 모티프는 앞으로의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암시하고 있다. 그런데 漱文 활자본은 숙향의 탄생시에만 예언 모티프가 나타날 뿐 탄생 이후에 전개되는 내용에서는 예언 모티프가 감소되어

25) 이상택, 「古代小說의 世俗化過程 試論」, 『韓國古典小說研究』, 새문사, 1983, pp.75-76.

26) 『影印 古小說板刻本全集』, 卷四, p.146.

27) 『活字本 古典小說全集』, 卷四, 동국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76, pp.83-84.

있다. 이에 비하여 국문 경판본은 숙향의 탄생 이후에도 5>단락, 9>단락에서 앞으로 일어날 사건 전개에 대한 암시가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② 이시의 숙향이 정처업시 단니드가 날이 져물미 남굴 의지호여 안져 우
더니 문득 푸른시 쟁봉울이를 물고 손등의 안거눌 숙향이 그 쟁봉울이를 먹
은즉 비골프지 아니하고 정신이 황연호지라 청조 나라가거눌 식률 쓰라 혼
곳의 이르니 광장호 궁전이 있는지라 (中略) 부인이 소 완 이 쪽호 명수계오
첩은 후토부인이라 그더 인간의서 고행호 시미로 전남이와 황식와 가치와 청
조를 보니엇더니 보시니잇가 (中略) 부인 왈 월궁의 계실제 규정이라 하는
선네 옥황의 엿즈와 부인을 구호라 했다가 죄를 엊어 인간의 나려왔시니 부
인이 담승상 집의 가 견실 은혜를 감호 후의 터을 만나야 부모 거쳐를 알
거시니 그러호면 조연 십오년이리리이다 숙향이 탄 왈 인간 고행이 일각이
여삼축여늘 이제 십오년을 어이지내리오 부인이 위로 왈 그더 아모리 밧부
나 이미 하날이 경호신 쥬니 이제 드섯번 죽을 익을 지닌 후야 조연 지히 되
리니 밧비 가소서²⁸⁾

③ 어제 부왕이 옥경의 조회를 시 옥제 말숨을 뜯으니 소외 텐상의 들판
죄호여 김전의 집의 격강호여 도적의 칼아리 놀나게 하고 표진강의 쌩겨 죽
을 익을 담호고 노전의 화진을 만나고 낙양우중의 죽을 익을 지는 후의 터을
을 만나게 허시더라(中略) 선녀 왈 부인이 인간진의의 잠겨 우리를 모르시도
다 하고 이슬긋튼 차를 쥬며 굽오터 이를 먹으면 조연 암으시리이다 숙향이
밧아 먹으니 그제야 월궁소아로서 터을과 글 지어 창화하고 월연단을 도적호
여 터을을 준 죄로 인간의 격강호 님과 그 아희 둘은 부리던 시네라(中略)
선녀 왈 부인은 한치 마르소서 이거시 도시 텐정이니 담승상집 인연도 다만
십년 쁘이여니와 숙향이 부인을 모함한 죄로 옥제 진노호사 이의 뇌정으로
죽엿시니 부인의 이미홍을 승상집의서 알고 사름을 부려 들의와 찻다가 못호
여 도로 갓시니 이는 임의 명설호 엿거니와 암회 쪽 두횡익이 이스니 조심호
소서²⁹⁾

②는 숙향이 병란으로 가족과 분리되어 고난을 당하다가 천상적 존재에
의하여 구원을 받고 명사계를 여행하여 후토부인을 만나는 대목에서 후토
부인이 언급한 내용이다. 후토부인은 숙향에게 장승상 집에서 10년 동안
있어야 하며 다섯 번의 죽을 액을 지내야 되며 이것이 天定이라고 한다.
숙향이 병란으로 고난을 당하고 장승상에게 양육되는 것과 여러번의 죽을

28) 『影印 古小說板刻本全集』 卷四, pp.461~462.

29) 『影印 古小說板刻本全集』 卷四, p.465.

고비를 겪게 되는 작품내의 사건 전개가 天定을 암시한 후토부인의 언급과 일치 한다. 사건 전개에 대한 암시는 작품이 진행되고 사건이 복잡할수록 구체화되는데 ③은 ②에 비하여 구체화되고 있다. ③은 숙향이 장승상집에서 사향의 모함을 받아 죽겨 나서 강에 투신 자살하려다가 용녀와 선녀의 구원을 받고 용녀와 선녀에게서 숙향의 전생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대목이다. 작품에 실현되고 있는 숙향의 고난답인 병란과 표진강에 투신 자살, 화재, 이선 부모의 반대로 투옥되는 일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즉 ①-1은 고난과 결연에 대한 포괄적 내용을 암시함에 비하여 ②는 고난이 다섯번에 걸쳐 일어날 것을 암시하고 있고, ③은 다섯번에 걸쳐 일어날 고난이 표진강의 죽을 액, 화재, 낙양옥중의 액 등으로 구체적으로 암시되어 있다.

④ 터울이 황공 사려흔되 항아 쥬 월 소아 누츠 수익을 지니엿소오니 그
만 죄를 사호소서 상제 여리를 명호샤 슈한을 정호라 흐시니 여리 월 쇼한은
칠십을 겸지호느이다 죄 칠성을 명호여 주손을 겸지호라 흐시니 칠성 월 의
남 일녀를 명호느이다 죄 남두성을 명호샤 복녹을 겸지호라 흐시니 남두성
월 아들은 경승이 되고 뜰은 확후되게 흐느이다 상제 소아를 명호샤 반도와
계화를 터울을 쥐라 흐시니 터울이 두 손으로 밗으며 소아를 눈 쥐어 보니
소이 붓그려 몸을 두루혀다가 옥지환의 진흙 빠러지니 집고져 훌 시 터울이
문져 집어 손의 깨눈지라³⁰⁾

④는 숙향이 마고할미의 양육을 받으며 지내다가 꿈에 천상계를 여행하여 이선을 만나는 대목이다. 이 대목은 숙향이 이선을 만나는 사건과 숙향의 수한이 70이며 이남 일녀를 놓고 자식이 영달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②와 ③에서 숙향의 고난에 대한 암시가 ④에서 숙향의 말년에 대한 암시로 구체화되었다. ④의 암시는 실제 작품의 전개에서 숙향이 이남 일녀를 놓고 영달한 자식들과 행복하게 살다가 70살에 승천한다는 결미 부분과 일치하고 있다.

결국 초월적 모티프는 사건 전개를 암시하는 기능을 하는데 사건의 암시는 작품에서 사건이 진행되고 복잡해질수록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따라서 사건 암시와 사건 전개가 긴밀하게 일치하고 있다. 漢文 활자본은 국문

30) 「影印 古小說板刻本全集」 卷四, p.468.

경판본과 같이 천상적 질서의 작품 내적 실현을 지향하고 있음은 앞에서 언급하였다. 그런데 漢文 활자본은 사건에 대한 암시가 숙향 탄생시 포괄적으로 한 번 제시되었다가 숙향과 이선이 꿈에 천상에서 만나는 대목에 한정되어 있어 숙향의 고난담에 대한 암시와 사건 전개가 긴밀성을 보이고 있지 않다.

2) 사건 전개의 필연성 부여

앞에서 국문 경판본과 漢文 활자본에서 초월적 모티프는 사건 전개를 암시하는 기능을 하는데 국문 경판본은 암시가 작품이 진행될수록 구체화되어 사건 전개와 암시가 일치하는 긴밀성을 보이고 있으나, 漢文 활자본은 암시와 사건 진행과의 관련성이 파괴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번에는 초월적 모티프가 사건과 사건의 연결에 어떤 기능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사건 전개의 암시라는 기능이 사건 전개의 거시적인 측면에 대한 고찰이라면 이번에 살필 것은 하나의 사건에 초점을 두고 사건 발생의 합리성을 따지는 미시적인 측면에 대한 고찰이다.

다음에 제시하는 인용문은 숙향이 장승상부부와 만나는 대목이다.

부인 월월궁의 계실 제 규섬이라는 흥는 선네 육황의 엿즈와 부인을 구호
랴 흥다가 죄를 엊어 인간의 나려 왓시니 부인이 담승상 집의 가 점심 은혜
를 갑흔 후의 턱을을 만나야 (中略) 그 소슴이 구름을 헤치고 가니 그 가는
바를 모를니라 혼 곳의 니르리 셔거눌 숙향이 나려 그 열미를 먹으니 비부르
고 텐상 일이 아득 혼지라 갈 바흘 몰나 모란 퍼귀를 이지히여 잠간 조으더
니 이곳은 담승상집 동산이라 (中略) 부인 몽중의 일위 선네 나려와 계화 흐
가지를 출식 놀나 씬다라 이 말을 승상의 고한터 승상 왈 날이' 가장 이상하
도다 흥고 후원의 가 뜻구경 흥더니 문득 치운이 어리고 향취 진동 흥더니 이
육향여 구름이 거치고 모란 퍼귀 가운데 혼 아희 죠을거늘 (中略) 부인이 조
세이 보니 몽중의 뵈던 선녀의 얼굴고거늘 그이히 넉여 걸오더³¹⁾

明朝에 淑香이 回顧四望 흥더니 固無所從이이니 忽有 白鹿이 不知自何處來
而背負淑香而去어늘 淑香이 雖甚怖懼 흥하나 乃以兩手로 撐扶毛鬚 흥하고 任其所
之이러니 累越峯崗 흥하야 行之一處에 間間이 摟地 흥하고 甲宅이 連雲 흥하니 此乃張丞
相應漢之家而年老致仕者라 厥鹿이 乃下淑香 흥하야 置之廁中而去 흥하니 淑香이
轉入其門에 丞相이 坐於堂上이어늘 淑香이 立於庭中 흥하야 涕泣求食 흥하니³²⁾

31) 『影印 古小說板刻本全集』 卷四, p.462.

숙향은 병란에 의한 고초에서 초월적 존재의 구원을 받고 장승상집에 의탁하여 양육된다. 국문 경판본에서는 숙향이 장승상과 만나기 이전에 명사계를 여행하여 후토부인과 대화하는 대목이 있지만, 漢文 활자본에서는 이러한 대목이 없이 사슴에 인도되어 장승상부부와 만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 漱文 활자본은 숙향이 사슴가는 대로 맡겨 우연히 장승상 집에 도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국문 경판본은 숙향이 장승상집에 가게 되는 이유를 ‘은혜를 갚기 위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장승상 부인의 꿈을 통하여 숙향의 얼굴을 알도록 처리하고 있다. 결국 숙향과 장승상 부부와의 만남이라는 사건에 초월적 모티프를 통하여 ‘필연성’을 부여하고 있다.

초월적 모티프가 사건 전개의 필연성을 부여하는 경우는 숙향과 이위공이 만나는 대목(21>단락)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다음에 제시한 인용문은 국문 경판본과 漱文 활자본에서 숙향과 이위공이 만나는 대목이다.

슈일 후의 읊 밤과 사תום이 가며 니르더 오늘 밤 이집의 도격이 들 거시니
 낭지 엇지 면 흐리오 흐거늘 냉하 놀나 맘지 소조 흐더니 숨술이 집안 세간을
 물어다가 쓰희 뭇눈지라 낭지 한미 말을 설각 흐고 한미분묘로 깅신 놋은 오
 슬 넘고 식 오슬 지 등의 연고 경계 활 이제 한미분묘의 가려하니 너는 길을
 인도하라 (中略) 낭지 스면 돌아보니 성월은 요량하고 풍경은 처양한지라 심
 손 궁곡의 인격엽시 호을노 안져 나는니 슬푼 모음뿐 나는지라 한미의 분묘
 를 두드리고 일장 통곡하더라 약설 삼세 아조를 흑관의 두고 도라와 가죽이
 격뇨한미 부인으로 더부러 완월누의 읊나 슬을 먹더니 어되서 처량한 곡성이
 들니거늘 이 심야의 엇던 계집이 우는고 알아오라 흐니 마춤 니랑의 유외 시
 측호였다가 우는 소리를 측증가니³²⁾

淑香이 無人頽屋에 與狗相伴호야 或飢或食하며 願影相悲러니 一夕에 月色
 은 如練호고 鳴聲은 流哀어늘 淑香이 感物懷人호야 向月痛哭이러라 是夜에
 魏公이 與夫人으로 同上斷月樓호야 共看明月色이러니 魏公이 謂夫人曰何處
 何人이 緣何事호야 哭何痛耶야 (中略) 可使尋問이라하고 卽遙人訪之호니³⁴⁾

이위공은 집의 누각에 올라 달 구경을 하다가 집 주위에서 울음 소리를

32) 『活字本 古典小說全集』, 卷四, pp.87-88.

33) 『影印 古小說板刻本全集』, 卷四, p.477.

34) 『活字本 古典小說全集』, 卷四, p.137.

듣고 숙향과 만나게 된다. 숙향이 이위공의 집근처에 가게 된 이유에 대하여 漢文 활자본과 국문 경판본에 차이가 있는데 漱文 활자본은 숙향이 사는 집이 이위공의 집근처로 설정되어 있다. 숙향은 이위공에 의하여 하옥되어 고초를 받다가 이선과 만나지 못하도록 烹겨 났다. 그런데 그러한 숙향이 갑자기 이선의 집근처에서 울고 있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어 漱文 활자본은 숙향과 이위공의 만남에 필연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에 비하여 국문 경판본은 도적의 침입이 있고, 숙향은 도적을 피하여 마고할미의 무덤가에 가서 이위공과 만나게 설정되어 있다. 즉 숙향의 위난이 있고 할미의 무덤이 이위공 집 근처에 있음으로 하여 숙향과 이위공의 만남에 필연성을 부여한다. 숙향은 할미의 말에 따라 할미의 무덤가인 이위공의 집근처로 간다. 할미의 말이란 할미가 죽을 때 “나의 남편 옷함을 빙렵하고 쳐기리를 짜라가 허위는 곳의 뭇고 혹은 어려운 날 잊거든 너 분묘로 오소서”³⁵⁾라고 언급한 부분이다. 국문 경판본과 漱文 활자본에 마고할미와 개가 모두 천상적 존재로 설정되어 있으나, 국문 경판본이 漱文 활자본에 비하여 마고할미와 개의 신이성이 부각되어 있음을 언급하였다. 결국 마고할미와 개의 신이성이 부각됨으로써 숙향과 이위공부부의 만남이라는 사건 전개에 필연성을 부여 하는 것이다.

3) 사건 전개의 긴장감 해소와 긴장감 야기

앞에서 초월적 모티프가 사건 전개에 필연성을 부여하는 기능함을 살펴보았다. 숙향의 장승상 부부와의 만남과 이위공 부부와의 만남에 국문 경판본은 예언 모티프와 초월적 존재의 신이성이 부각됨으로써 필연성을 띠고 漱文 활자본은 이것이 축소되어 있음으로써 우연성으로 처리된다. 이번에는 초월적 모티프가 사건 전개의 긴장감이란 측면에서는 어떤 기능을 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사건 전개에서 긴장감이란 독자의 입장에서 본 측면으로 어떤 사건이 전개될 때 그 시 말에 대한 기대감과 불안감 등을 지칭한다. 초월적 모티프 중 이러한 긴장감과 관련된 것은 주로 예언 모티프로 숙향이 천상적 인물과 대화하는 부분이다.

35) 影印 古小說板刻本全集, 卷四, p.476.

부인이 소 월 이 죽은 명수제오 청은 후토부인이라 그더 인간의서 고횡호 시미로 전남이와 황식과 가치와 청조를 보니였더니 보시니잇가 (中略) 숙향 월 청의 인간 부모 날을 보리고 갖소오니 만일 죽어 계시면 분명 십왕전의 계실 거시니 촉즈보고져 흔느이다 부인 월 그더 부모도 죽은 선군으로서 하계의 격강호지라 흔이 촉면 도로 텐상으로 가실 거시니 명수제의는 오지 아니리이다 숙향 월 그려호진더 부모를 드시 만나리잇가 부인 월 월궁의 계실 제 규정이라 흔는 션네 옥황의 옛즈와 부인을 구호라 흔다가 죄를 엊어 인간의 나려왓시니 부인이 당승상 집의가 전성 은혜를 갑흔 후의 터울을 만나야 부모 거쳐를 알거시니 그러흔면 주연 십오 년이리리이다 숙향이 탄 월 인간 고횡이 일각이 여삼축여놀 이제 십오 년을 어이지너리오 부인 위로 월 그더 아모리 밧부나 이의 하날이 정호신 쇄니 이제 드섯번 죽을 익을 지난 후야 주연 저히 되리니 밧비 가소서 숙향 월 인간 길을 모로니 뉘 집의가 의탁 리오³⁶⁾

위 인용문은 숙향이 후토 부인과 대화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앞에서 사건 전개의 암시라는 측면에서 한번 검토한 바 있다. 숙향과 후토 부인의 대화를 중심으로 이러한 대화가 사건 전개의 긴장감에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숙향과 후토 부인의 대화는 크게 두 가지 화제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첫번째 화제는 숙향이 부모와 헤어진 사건에 관한 것이고 두번째 화제는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관한 것이다. 첫번째 화제에서 숙향은 부모가 죽은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과 다시 만날 수는 있는가 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 이러한 걱정과 기대는 병란으로 인한 가족과의 분리라는 사건에서 독자가 가질 수 있는 긴장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즉 독자는 숙향의 가족 분리에서 숙향은 다시 가족과 만나겠는가 하는 기대감과 숙향의 부모가 죽은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지닌다. 이러한 긴장감이 숙향의 부인을 향한 진술에서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부인은 숙향의 진술에 대하여 부모는 죽지 않았으며 다시 만날 수 있음을 언급한다. 이것 은 이전 사건에서 형성된 긴장감을 '해소'하는 것이다. 두번째 화제는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한 것인데 부인은 숙향에게 앞으로 전개될 사건이 다섯번의 고난을 십년간 거쳐야 됨을 언급한다. 후토부인의 진술태도가 비교적 담담한 편이라면 숙향의 후토부인에 대한 태도는 '어이 지내리오' '뉘 집의 가 의탁하리오'와 같이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36) 「影印 古小說板刻本全集」卷四, p.465.

러한 숙향의 불안한 모습은 독자로 하여금 숙향에 대한 걱정 즉 앞으로 전개될 사건에 대한 긴장감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숙향 월 나는 어려서 부모를 일코 남의 집의서 고향혼다가 악명을 심고 츠
마 세상의 잊지 못호여 이 물의 쌩쳐 죽으려 흐거늘 그더 멀니와 슈구로이
구호시니 김격호어이다 (中略) 너 전심의 죄 즘흡으로 부모를 일코 고상은
호려니와 당승상집 악명은 무습 닐고 선녀 월 부인은 하치 마르소서 이거시
도시 턴정이니 당승상집 인연도 다만 십년 뿐이여니와 소향이 부인을 모함호
죄로 옥체 진노호사 이의 뇌정으로 죽여시니 부인의 인미흡을 숭상집의서 알고
사름을 부려 들의와 찻다가 못호여 도로 갓시니 이는 임의 명설호엿거니
와 암회 쏘 두 횡인이 이스니 조심호소서 숙향이 솔연 월 지난 닐도 망극호
거늘 쏘 두 익을 엇지호리오 숭상과 부인이 나의 인매흡을 일앗실진데 그리
로 가서 익을 면코직호노라 선녀 월 이 다 턴정이니 임의로 못호거시니 흐
물며 터울 있는 곳이 당승상집과 상계 삼천삼백 니니 서로 만날길이 아득하고
터울이 아니면 인간 부모도 득시 못보리이다(中略) 숙향 월 터울 있는 곳
이 삼천삼백 니라 흐니 터울을 만나기 견은 어딘가 의탁하며 우리 부모는 어
듸가 만나리오³⁷⁾

위의 인용문은 숙향과 선녀와의 대화이다. 숙향은 시비 사향의 모함으로 장승상집에서 쫓겨나와 표진강에서 자살을 시도하는데 용녀와 선녀에 의하여 구출된다. 구출된 숙향은 선녀와 대화를 나눈다. 숙향과 선녀의 대화는 두가지 화제가 중심을 이룬다. 첫번째 화제는 사향의 모함에 대한 것이고 두번째 화제는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한 것이다. 숙향은 선녀를 향하여 자신은 무고하게 악명을 받게 된 것을 한탄하고 있다. 이러한 한탄은 숙향의 무고함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기대와 숙향의 무고함이 밝혀지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이 복합된 것으로 사향의 모함이라는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긴장감을 유발한다. 선녀는 숙향을 향하여 사향의 처리와 장승상부부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된다고 말함으로써 사향의 모함에서 야기된 긴장감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두번째 화제에서 선녀가 두고난이 남아 있음을 이야기 하자 숙향은 두려워하며 걱정하는 모습을 보인다. 심지어 장승상 부인에 다시 의탁하여 앞으로 전개될 사건을 피하려고 있다. 숙향은 현실적 차원에서 가능한 의문과 걱정을 제기하고 있는

37) 影印 古小說板刻本全集, 卷四, p.465.

것이다. 즉 숙향은 선녀와의 대화를 통하여 앞으로 전개될 사건에 대하여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은 독자로 하여금 전개될 사건에 대한 긴장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 초월적 모티프 중 숙향과 천상적 존재의 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외의 漢文 활자본과 차이가 나는 초월적 모티프로 8>단락 사향의 모함을 암시하는 대목과 10>단락 천상적 인물에 의한 사향의 징치 부분을 들 수 있다. 8>단락은 사향의 모함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국문 경판본에만 있고 漢文 활자본에는 없다. 국문 경판본에서 사향의 모함이 있기 전 숙향이 장승상 부부와 춘경을 구경하는데 저녁 까치가 낭자의 앞을 향하여 세 번 울고 가는 대목이 나온다.³⁸⁾ 불길한 사건이 일어날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앞으로 전개될 사건에 긴장감을 준다. 10>단락은 천상적 존재에 의하여 사향이 징치되는 대목인데 국문 경판본은 천상적 존재인 '중'이 와서 사향을 징치하고 漱文 활자본은 벼락이 쳐서 사향이 징치된다.

중이 읍하고 안거늘 승상이 문 활 션식 어더 잇스며 무숨 널노 오시느뇨
 중이 담 월 나는 텐상으로서 온 줌이라니 양제 명으로 승상집 옥석을 갈희려
 왓시니 가족 비복을 다 부르소서 (中略) 텐승 월 승상이 숙향의 널을 알으시
 너니잇가 미쳐 담지 못하고 소향이 뇌드라 니르되 이 줌은 어더로서 난 중이
 완더 숙향의 말을 고지 듯고 치상가의 무례히 출입하여 무숨 말을 흐는요 승
 상은 빛비 쳐 줌을 잡아 나려 치좌호소쇼 흐니 텐승이 양턴 더소 월 네 승상
 집 가스를 주장호되 도격질노 위업호다가 숙향이 드러온 후루는 네 임의로
 못하여 숙향을 원망하여 악명시리 너치니 승상은 속았거니와 하늘조차 속일
 소냐 흐고 소미로서 쳐그마흔 불슈레를 너여 노코³⁹⁾

위 인용문은 숙향이 쫓겨나서 표진강에 자살 시도가 있은 다음 천상적 존재인 중에 의하여 사향이 징치되는 대목이다. 사향은 자신의 무죄를 끝까지 주장하지만 중은 사향을 논죄하면서 숙향과의 갈등에서 드러난 사향의 속마음을 폭로함으로써 장승상부부에게 사향의 숙향에 대한 갈등의 전모를 보여준다. 漱文 활자본에서는 이 부분이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38) 『影印 古小說板刻本全集』 卷四, p.463.

39) 『影印 古小說板刻本全集』 卷四, p.466.

行人過者相與詰曰 張丞相宅女僕四香이 爲暴雷震死而背上에 書四字云호더
 出奸陷人이라하니 大是異事라(中略) 是時에 張丞相家에 既出淑香之後로 遇見
 四香之暴死하고 知淑香之無罪하며 痛四香之奸謀하야⁴⁰⁾

사향의 징치가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쳐서 죽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出奸陷人'이라는 글자를 나타내어 숙향의 무고함을 알게 한다. 국문 경판본이 사향의 논죄 과정에서 사향의 간악함이 드러나고 사향의 갈등에 대한 속마음이 폭로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것은 국문 경판본에 나타난 천상적 존재의 징치가 사향 모함이라는 사건에 대한 긴장감 해소에 더 적합한 것임을 알게 해 준다.

이상 초월적 모티프의 기능을 중심으로 국문 경판본과 漢文 활자본을 비교하였다. 초월적 모티프의 양상에서 국문 경판본은 漱文 활자본에 비하여 예언적 모티프와 천상적 존재의 신이성이 부각되어 있다. 초월적 모티프의 작품 내적 기능은 사건 전개를 암시하고 사건 전개에 필연성을 부여 하며 긴장감을 형성하거나 해소하는 기능을 한다. 국문 경판본은 漱文 활자본에 비하여 예언적 모티프와 천상적 존재의 신이성이 부각됨으로써 사건 전개의 암시와 사건 전개가 긴밀성을 지니고 있고, 사건 전개에 필연성이 있으며 사건 전개에 따라 긴장감이 형성된다.

4. 결 론

본고는 선행 연구에서 숙향전의 구조적 특징과 초월적 모티프의 작품 내적 기능에 대한 연구와 이본 연구가 소략한 점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본고는 제기한 문제의 해명을 위하여 숙향전의 구조와 초월적 모티프의 작품 내적 기능에 초점을 두고 숙향전 이본중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이는 국문 경판본과 漱文 활자본의 비교를 통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숙향전의 구조는 선행 연구에서 초월적 환원구조에 주목하였으나, 본고

40) 『活字本 古典小說全集』卷四, p.97.

는 숙향의 地上에서 수행하는 고난에 초점을 두고 ‘분리-결합’의 반복과 ‘가족 분리’와 ‘연인 분리’가 대웅되는 구조로 파악하였다. 국문 경판본은 이러한 구조에 완결성을 보인 반면 漢文 활자본은 구조의 파괴를 보이고 있다. 현실적 성격을 지닌 단락의 비교에서 국문 경판본은 사건 전개가 합리성을 보인 반면 漱文 활자본은 사건 전개에 당착과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숙향전에 나타난 초월적 모티프의 작품 내적 기능에서 초월적 모티프는 사건 전개를 암시하는 기능과 사건 전개의 필연성, 긴장감 야기와 해소의 기능을 지니고 있다. 국문 경판본은 초월적 모티프가 완벽하게 갖추어져 사건 암시가 구체화되고 사건 전개와 긴밀성을 지니고 있는데 비하여 漱文 활자본은 이러한 긴밀성이 결여되어 있다. 국문 경판본은 초월적 모티프로 인하여 사건 전개에 필연성이 부여되는 반면 漱文 활자본은 우연성으로 처리된다. 또한 국문 경판본은 초월적 모티프를 통하여 사건 전개에 긴장감을 유발하거나 해소하지만 漱文 활자본은 긴장감 유발과 해소의 장치가 없다. 漱文 활자본은 국문 경판본에 비하여 초월적 모티프가 감소됨으로써 구조적인 파괴와 사건 전개 암시와 사건 전개의 긴밀성 파괴, 사건 전개의 필연성과 합리성 결여, 작품의 긴장감이 결여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결국 초월적 모티프의 삭제와 확대는 단지 독자의 흥미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작품의 구조와 사건 전개의 필연성과 관련된 본질적인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하였을 때 국문 경판본과 漱文 활자본 중 어느 것이 선행하는가? 이 물음은 숙향전의 이본이 초월적 모티프가 감소된 상태에서 확장되는 상태로 개작되는가 아니면 초월적 모티프가 삭제되는 상태로 개작되는가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이 문제에 대한 해명은 모든 이본의 대교와 그 계보를 설정한 다음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앞의 결과를 토대로 개작의 양상이 어느 쪽이 용이한가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 초월적 모티프는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신이성을 나타내어 독자의 흥미성을 부각시키는 역할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작품의 구조와 서사적 전개등의 본질적인 문제와 관련된다. 漱文 활자본이 선행한다면 개작자는 단순히 초월적 모티프의 확장이라는 차

원을 넘어서 작품의 구조와 서사적 전개를 염두에 두고 모티프들을 배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문 경판본에서 漢文 활자본으로의 개작이 이루어졌다면 개작자는 儒教意識에서 신이성이 특히 두드러진 부분을 삭제하기만 하면 된다.⁴¹⁾ 단지 삭제의 결과가 구조와 서사적 전개에 나타나게 된다. 결국 국문 경판본에서 漢文 활자본으로의 개작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숙향과 이선의 결혼에서 국문 경판본은 주혼자로 고모가 등장하는데 漢文 활자본은 주혼자가 등장하지 않는다. 주혼자의 유무는 결혼의 형식이 완강한가 아니면 결혼 형식이 자유로운가 하는 점과 관련된다. 漢文 활자본이 儒教意識을 지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의 형식이 자유롭게 설정되었다는 점은 漱文 활자본이 국문 경판본에 비하여 시기적으로 후대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숙향전에 나타난 초월적 모티프를 중심으로 작품의 구조와 모티프의 작품 내적 기능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관심을 가졌던 漱文 활자본과 국문 경판본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으며 작품의 구조와 초월적 모티프의 작품 내적 기능을 추출해 내었다. 그러나 漱文 활자본과 국문 경판본의 선후 관계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하였다. 이본의 선후문제는 모든 이본을 검토하여 작품 내적인 분석과 작품 외적인 자료의 보강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1) 초월적 모티프 중 특히 신이성이 두드러진 부분은 초월계 여행 모티프와 현세적 인물과 초월적 인물이 대화를 나누는 예언 모티프이다.

참고 문헌

1. 資料

- <淑香傳>(국문경판본, 3권 3책, 『影印 古小說板刻本全集 四』)
- <淑香傳>(漢文懸吐本, 『活字本 古典小說全集』 卷四, 동국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76)
- <숙향전>(국문필사본, 『韓國古代小說叢書』 1권,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1959)
- <淑香傳>(국문활자본, 세창서판)
- <淑香傳>(국문필사본, 日本九州沈壽官 소장, 『古典小說選』, 형설출판사, 1970)

2. 參考 論著

- 구충희, 「숙향전이본고」,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3.
- 김기동, 『한국고전소설연구』, 교학사, 1983.
- 김옹환, 「淑香傳의 道教思想의 考察」, 『韓國文學의 道教的 照明』, 보성문화사, 1992.
- 김종대, 「숙향전고」, 『국어교육』 59·60호 합본, 한국 국어교육 연구회, 1987.
- 서대석, 『한국서사사무가의 연구』, 문학사상사, 1992.
- 신재홍, 「淑香傳의 美的 特質」, 『古小說研究論叢』, 景仁文化社, 1994.
- 양혜란, 「숙향전에 나타난 서사기법으로서의 시간문제」, 『우리어문학연구』 3집, 한국외국어대학교 사범대학 한국어교육학과, 1991.
- 이상구, 「숙향전의 현실적 성격」, 『고전문학연구』 6집,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91.

- 이상택, 「古典小說의 社會와人間」, 『韓國思想大系1』,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소, 1973.
- _____, 「고대소설의 세속화 과정 시론」, 『한국고전소설연구』, 새문사, 1983.
- _____, 「醉遊浮碧亭記의 道家的 文化意識」, 『한국고전소설의 탐구』, 중앙출판, 1983.
- 조동일, 『韓國小說의 理論』, 지식산업사, 1989.
- 조용호, 「淑香傳의 構造와 意味」, 『고전문학연구』 제7집,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92.